

광주·전남 새누리당 공천 후보 어떻게 돼 가나

## 대부분 후보 낸다더니... 겨우 3곳뿐

〈서울·나주화순·순천곡성〉

### 19개 중 14개 선거구 21명만 공천 신청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공천지역 선정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애초 대부분 선거구에 후보를 내세울 방침이었으나 인물난 등으로 인해 공천지역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7일 현재 광주·전남 19개 선거구 중 공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구는 광주시 서구 을(이정현 의원)과 나주·화순(문종안 후보), 순천·곡성(정재하 후보) 등 3곳뿐이다.

지난달 15일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 신청자를 마감한 결과, 광주·전남에선 20개 선거구 중 14개 선거구에서 모두 21명의 후보가 공천 신청을 했었다.

제외된 선거구는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 갑·을, 광양, 무안·신안 등 5곳이다.

새누리당은 애초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천지역 선정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새누리당 공천확정 지역구는 118곳, 미공천지역은 경선지역 47곳을 포함해 128곳이다.

광주·전남지역 공천자 발표가 늦

어지는 이유는 공천 신청자가 너무 적어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경쟁률은 1.05대 1, 전국 평균은 3.97대 1이다. 한 선거구당 1명꼴로 공천신청을 한 상황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당 내에서 일부 거론되는 후보들도 있지만, 내부 인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여당은 늦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일(22일~23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선 15일까지는 후보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지역을 몇 곳이나 더 추가 선정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이날 현재까지 발표한 공천지역 이외에도 추가로 공천지역을 더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다음주 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 발표된 3곳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며 “당 공심위에서 몇 곳을 더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선정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공천 확정 발표일정은 당 공심위에서 결정하는 문제여서 잘 모르겠다”면서 “당 방침이 있는 만큼 추가로 더 발표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동대문 을 홍준표·영등포 갑 박선규

### 새누리, 16곳 공천 추가... 정홍원 “25% 컷오프 자료 공개 못해”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는 7일 서울 동대문을에 당에 거취를 일임했던 홍준표 전 대표를 공천하는 등 16개 지역에 대한 3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천자 16명 중 11명이 전라지역 공천자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전통 텃밭인 수도권 ‘강남벨트’와 영남권을 중심으로 총 35곳의 전라지역을 선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강세 지

역의 물갈이가 서서히 가시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전체 지역구 246곳의 48%에 달하는 118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다. 현재 미공천지역은 경선지역 47곳을 포함해 128곳이다.

이날 공천자 명단에는 서울지역에서 홍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규(영등포갑)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유일호(송파을) 의원,

김정우(양천갑)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준길(광진을) 전 대검 중수부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에서는 이진복(동래)·김정훈(남구갑)·박민식(북구·강서갑) 의원, 울산은 이재익(남구갑) 전 울산 남구청장의 공천이 확정됐다.

그 밖의 공천 확정자는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구위원 ▲김진태(강원 춘천) 전 춘천지검 부장검사 ▲권성동(강원 강

릉) 의원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전 당협위원장 ▲박종준(충남 공주)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 전 KBS 방송국장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이다.

한편,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이날 공천 탈락·보류자들의 ‘25% 컷오프’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의원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한·두 사람에게 공개하면 전체 공개가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기준에 대해 “여론조사와 컷오프 자료를 일단 보고 그 기준을 통과하면 도덕성 검증 결과에다 세력, 지역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공천위원회 토론을 통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현철 “공천탈락 민주계와 손 잡을 수도”

새누리당 경남 거제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7일 낙천자들의 신당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외연의 폭을 야당과 같이 넓히자는 분도 계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소장은 CBS라디오 ‘김현

철의 뉴스쇼’에 출연,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범민주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공천 탈락자들이 민주당 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호남권 민주계 인사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호남권 낙천자’들도 “그런 공통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이쪽의 정서가 또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내주께 집단탈당할 것이라 전장을 놓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최소한 20~30명은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탈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공천심사 기초자료로 사용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만간 말씀이 게실 것이고 총선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비례대표 출마 당 결정에 맡길 것”

박근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밝혀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 상설특검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비례대표 출마와 관련, “현재 지역구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이고 비례대표 심사는 시작하지도 않았다”면서 “당의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내에서는 그가 비례대표 1번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 “역대로 정부 맡기 때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래서 국민 삶의 어려운 점이 해결됐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통령 탈당이 해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엇이 지탄을 받는 것

인지 분명히 알아서 고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도 국정 책임 있는 마무리를 위해 탈당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그는 “당 대표 시절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상설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제도를 포함해 뭔가 근본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자주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는 당연히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잘못이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 제기한 공동책임론



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야당은 저한테 공동책임론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당 안팎에서 그동안 저를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부르고 특히 야당의 경우 무슨 사안만 터지면 ‘박근혜 답하라’고 꼭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강정마을 구럼비해안 발파

7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해안 중턱 인근 케이슨제작장 부지에서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발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발파를 둘러싸고 현장 곳곳에서 경찰 등과 반대측 간 마찰이 빚어졌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해군참모총장에게 사전예고 공문을 보냈으나 국방부는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 민주 서울시당 대변인 자살 기도

#### 은평을 단일화 반발

민주통합당에 서울 은평을 선거구 후보 공천을 신청한 고연호(49)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5분께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자택에서 고 대변인이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신음하는 것을 남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 대변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고 대변인의 가족이 “수면제를 30알 넘게 먹었

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자살 기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 대변인이 수면제 다량 복용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은평을 지역은 최근 야권단일화 지역으로 선정돼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검토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야권단일화가 추진되자 이에 반발하면서 성명서와 SNS 등을 통해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천 후보에게 야권단일화경선을 치를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적은 투자로 큰 효과에 크게 감탄하실 것입니다.

썩지않고 강하며 수명이 영구적인 스텐레스 **Extrong**못으로 시공하신 목조건축물의 구조물 데크 사이딩 등 금속기와 방부목의 조정시설물 해양시설물 등 등은 수십년 수백년 후 까지 안전하고 튼튼하게 귀하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08-8 (주)두남금속공업  
Tel(031)985-3003 Fax(031)985-3004  
www.doonammetal.co.kr

木造建築物의 不老長生 못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